



한미 해군이 25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앞열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울곡이이함, 로버트스몰스함, 대조영함, 천지함, 슈프함. 해군 제공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해군, 한미 연합해상훈련
함정 9척·해상초계기 2대 참가
작전수행능력·상호운용성 강화

해군은 25일 동해상에서 대잠전, 해상사격을 비롯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신형 잠수함 진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울곡이이함·구축함 대조영함·잠수함 2척,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로버트스몰스함·이지스 구축함 슈프함 등 한미 함정 9척과 해상초계기 2대가 참가했다.

우리 해군을 지휘한 김인호(준장) 7기동

전단장은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

드론 전투 전문가 교육·경연대회

육군2작전사령부 - 경운대학교
군·학 협력 양해각서 체결 따른 기획
요원 기량 향상에 대학 전문성 접목

육군2작전사령부(작전사)와 경운대는 지난 19일부터 4일간 경운대 캠퍼스와 50보병사단 드론센터에서 드론 전투 전문가 과정 교육과 ‘작전사 드론 타이거(Drone TIGER)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장병들이 드론을 다루는 수준 높은 기술을 숙달하고, 작전사와 경운대가 드론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공유·발전을 가속하는 계기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작전사-경운대의 ‘군·학 협력 드론 전투 전문가과정 개설’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기획됐다.

드론 전투 전문가 과정은 사단별로 2명씩 드론 전문가를 선발해 온·오프라인 교육

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교육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대드론 전술과 투척 장치 설계 과정에 대한 이론 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경운대에서 투척장치 설계 과정 실습과 3D 프린팅 설계·제작으로 이뤄졌다.

경운대 무인기 공학과 대학원생들이 교육 간 장병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성과를 높였다.

장병들은 교육받은 내용으로 경연대회에 임했다. 경기는 무게 10kg 미만의 상용 드론을 자체 개조해 표적을 식별하고 수류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드론축구를 포함한 드론봇 경연대회도 진행됐다. 평가는 경운대 교수들과 작전사 드론 전문교관들이 맡아, 정확성·임무시간·개조 용이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우수인원을 선발했다.

최우수 인원으로 선정된 35보병사단 안현주(상사) 교관은 “공격드론의 핵심 장비



육군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작전사 드론 타이거 경연대회 중 개조한 드론에 대해 평가관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부대 제공

인 투척 장치에 관한 전문가 이론교육과 실제 설계·제작으로 깊이 있는 교육효과를 느꼈다”며 “앞으로도 작전사 내 드론전투요원 모두가 한층 업그레이드돼 최고 전문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현영 경운대 교수는 “군내 드론 전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과정인 만큼,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작전사 드론 요원의 전투기량 향상을 위해 우리 대학 무인기 공학과의 전문성을 접목해 군의 전투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열 기자

직접 보고 만지며 잠수함 이해도 높였다

해군1함대 - 육군23경비여단
대잠 워파이트 익스체인지 실시

해군1함대 1해상전투단은 25일 부대 내에서 육군23경비여단과 함께 ‘대잠 워파이트 익스체인지(Warfight Exchange)’를 실

시했다고 밝혔다.

대잠 워파이트 익스체인지는 수상함 승조원이 해역 함대에 전개한 잠수함을 견학하며 잠수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잠전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해안 경계 임무

를 수행하는 23경비여단 장병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1해상전투단과 23경비여단 장병들은 이날 동해 군항에 정박한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전술 토의 시간에는 잠수함 제원, 수중작전 등에 궁금했던 점을 잠수함 승조원에게 질문하며 대잠작전 합동성을 강화했다.

23경비여단 조대건 하사는 “평소 잠수

함을 접할 일이 드문데, 직접 견학하고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번 기회에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해안 경계 작전 임무를 보다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자심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태규(준장) 1해상전투단장은 “해군과 육군 해안 경계부대는 대잠작전을 함께 수행하는 부대”라며 “앞으로도 합동 대잠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준 기자